

강기정 시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민심 경청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은 점포 곳곳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과 등 제수용품 구입하며, 명절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를 세심하게 점검했다.

상인들과는 최근 매출 동향과 체감 경기, 물가 부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에도 소비심리가 예전 같지 않다"며 현상의 어려움을 전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건네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강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흐름과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에 충실히 반영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켜오시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시민들께서도 설 명절 장보기

말바우시장 찾아 장바구니 물가 살피고 상인·시민과 소통 자치구·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를 전통시장에서 함께 주신다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말바우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고객 유입 확대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

구와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3~22일)를 추진하고 있다. 또

10일부터 14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지류)을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12개 시장, 13억1800만원) ▲주차환

경개선사업(1개 시장, 4억27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3개 시장, 11억7000만원) ▲상권르네상스사업(2개 권역, 28억7000만원) ▲골목상권 현장지원단(23명, 3억원) 운영 등을 추진,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이어간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 남구 "공직자 중립, 민주주의 지키는 힘" 실사례 위주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등 학습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서양호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강단에 올라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등을 1시간 가량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는 이날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행위를 비롯해 최근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하며, 강의가 끝난 뒤에는 구청 공직자들과 질의응답도 주고

받으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이번 교육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선거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임채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양당 핵심 기반, 그 중에서도 무소속 돌풍이 잦았던 전남에서의 맞대결은 그래선지 벌써부터 큰 관심사다. 혁신당 1호 단체장이 있는 담양을 비롯, 여수·순천·영광·곡성·진도·강진 등지에서는 진보 야당과 무소속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혁신당 전남도당에 민주당 공천기준을 공개 저격한 점도 전선의 긴장감을 대변하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12일 "민주당에 농락당했다는 분노감이 적잖다"며 "합당을 고려해 후보공천을 주저했던 선거구에도 자

당 후보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거 연대설도 나오고 있어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정치적 협업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덧발 맹주' 민주당, 공천 전쟁·경멸심사 주목

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당은 실사단을 꾸려 평판, 지역 기여도, 비위 의혹 등을 현미경 검증하고 있다. 특히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강한 만큼 하위 20% 선출직의 이의신청 인용 여부와 공천 관리의 공정성이 화두다.

공천 심사는 적합도조사를 시작으로, 경력증명과 면접을 거쳐 2월말 시·도당

상무위에서 최종 의결하고, 3월 권역별 의원 경선, 기초단체장 공개 면접·합동 토론회, 연설회가 열리고 4월에 기초단체장 경선이 진행된다.

4월 특별시장 공천은 '권리당원 50%·여론 50%'인 기존 표준방식에 시민배심원제를 더하는 방식과 권역별 경선, 선호도 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확대, 통합특별시 광역의원정수 조정 등도 공천레이스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선·무소속 성적표, 제3인물 등판 관심

3선에 도전하는 기초단체장은 광주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전남 명현관 해남군수, 김산 무안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호 보성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등 모두 7명이다. 2022년 지선 3선 성공률은 33.3%(6명 중 2명)에 그쳤다.

최근 20년간 지선 때마다 전남에서만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배출된 바 있어 이번에도 무소속 돌풍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지만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각축전에 일부 정당들의 '노컷오프 경선'으로 무소속 파이가 예년만큼 폭발적일지는 미지수다.

/이승원 기자

서구, 명절에도 흔들림 없는 '청렴 서구' 선언

"안 주고, 안 받기"가 일상되는 공직문화 만든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을 선택이 아닌 원칙으로 삼는 '청렴 서구'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구는 10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금품·선물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을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안 주고, 안 받기' 청렴봉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마다 반복돼 온 관행적 금품·선물 수수를 단호히 차단하고 청렴이 서구 행정의 기본임을 전 직원들이 함께 확인하는 실천형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서구는 '안 주고, 안 받기'를 슬로건으로 청렴 실천 안내문이 담긴 청렴봉투를 직원들에게 나누며, 명절 전후 금품·선물 수수 금지를 다시 한번 환기했다.

특히 청렴봉투 안에는 행운카드를

함께 넣어 당첨자에게 복꾸러미를 증정하는 등 청렴을 부담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공감의 문화로 풀어냈다.

이승규 감사담당관은 "청렴은 규정 이전에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명절을 앞두고 스스로 돌아보며, 청렴 서구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3월 '반부패·청렴 서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관리 과제를 설정하고, 분기별 핵심 과제를 선정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청렴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구는 앞으로도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청렴을 서구 행정의 문화이자 경쟁력으로 정착시켜 '신뢰받는 생활정부'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합평군 공고 제2026 - 99호

합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월야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합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합 평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폭원							
기점	소로	3	76	4-8	95	월야면 월야리 종로 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 3-902	일반 도로	-	제1990-15.8(1990. 2.19)
변경	중로	3	A	12	95	월야면 월야리 종로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3-902	도로	-	제1990-15.8(1990. 2.1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소로 3-76	중로 3-A	□ 폭원 및 진행변경 - 기점 : B = 4-8m, L = 95m - 변경 : B = 12m, L = 95m	□ 주민 불편 사항 개선 및 도로 확장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제공하여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로 폭원 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1. 27. ~ 2025. 2. 9. (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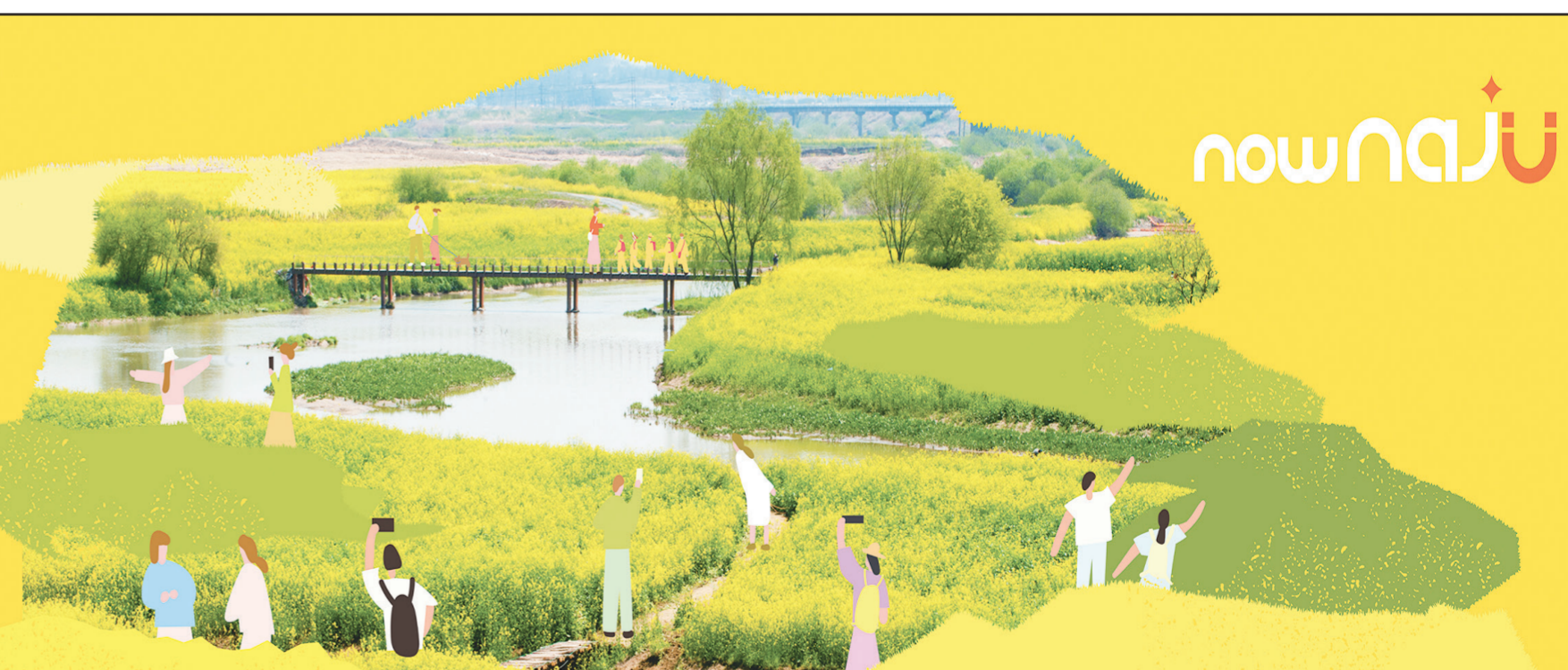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합평군청 본청3층 지역개발과

다. 관계도서 : 계획생략(합평군청 지역개발과, 월야면사무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청 지역개발과 (061-320-1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

